

하나됨과 나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오늘은 새해 첫째 주일입니다.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 다음 주일(12일) 4/4분기 실행위원회 정기회의 있습니다.
- 26일(주일) 공동체운영위원회 정기회의 있습니다.
- 연령별 사랑방 교사명단입니다.  
꾸러기, 어린이 : 석지인, 이승호 / 푸른꿈 : 이어진, 김화인  
늘푸른 : 장영미, 석용범 / 젊은이 : 최기찬, 김중필
- 기독교대안학교 연맹에서 주관하는 제 24회 기독교 대안학교 컨퍼런스가 8일(수)~10일(금)까지 경기도 화성 YBM연수원에서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영동 · 전경희 집사 가정 ( 감사 )  
정낙귀 · 정혜정 집사 가정 ( 감사 )

강단을 꽃으로 : 김영화 권사 ( 신년 감사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2 - 1 호

2025년 1월 5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사회는 변증법의 과정을 통해 발전한다

한국 사람들은 무섭다. 오래 전, 미국을 처음 방문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교포 한 분이 세탁소가 몰려있는 뉴욕 시내의 한 거리를 보여주며, “이 거리에 있는 세탁소들은 모두 유대인들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하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달려들어서 이길 수가 없다”고 말하더군요. 한국인들의 삶에 대한 열성을 말하는 것이지만, 통쾌함보다는 무언가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러한 삶에 공생(共生)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회는 변증법의 과정을 통해 발전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집단이 발전하기를 바라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발전을 위한 원리를 모르거나 알아도 그 원리를 실천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헤겔은 변증법, 즉 정(正)-반(反)-합(合)의 과정을 통해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기존의 체제가 도전을 받아서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고, 일을 할 때에 서로간의 의견 충돌을 통해 창의적인 일을 계획하게 되며,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서로 상충하는 의견을 조정하여 해결책을 이끌어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영학자인 피터 센게(Peter Senge)는 그의 학습조직 이론에서, 변증법적 사고가 조직의 혁신과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변증법 과정에 필요한 타협. 변증법 과정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는 ‘타협’입니다. 왜냐하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발전(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正)과 반(反) 모두에게 양보와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양보와 희생을 전제한 ‘타협’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타협의 기술은 사회를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이끄는 예술입니다.

물론 타협은 갈등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지 않으며 여전히 불안정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서로 불만족 할 수 있으나, 공동의 큰 목표  
선교와 섬김

를 지향하고 이어지는 다음 과정과 기회를 기대하면서 함께 동행(同行)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는 변증법의 과정이 없다. 한국 사회에는 발전을 위한 변증법적인 과정이 없고, 과정에 꼭 필요한 요소인 ‘타협’도 없습니다. 아니 타협할 줄을 모릅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교회를 포함한 한국사회의 조직과 집단은, 각자의 의견은 많으나 생각을 모으지 못하고, 열정은 있으나 감정적으로 대립하며, 갈등은 해결하지 못한 채 극한대립으로 치달곤 합니다.

며칠 전, 라파엘 라시드 기자(영국)는 한 공중파 방송에 출연하여 한국사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정치의 양극화, 타협의 부재, 분열과 복수의 정치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진정한 도전은 탄핵 이후가 될 거예요. 정치인들의 정치부패, 헌법위반, 파괴적 정치수법에 휘말리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바리새인들이 간음 현장에서 여인을 끌고와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법대로 죽일까요? 법을 어기고 살려줄까요? 예수님께서 ‘제3의 길’을 깨우쳐 주시며, 공멸(共滅)의 위험을 공생(共生)의 결과로 바꾸셨습니다.<요8:1-11>

그리스도인들은 제3의 길, 변증법의 과정(合)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길을 가는데 필요한 ‘타협’을 가정과 학교에서 꼭 가르쳐야 합니다.

덴마크의 그룬트비히 목사님은 교육을 통해 국민계몽운동과 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해 ‘자유학교’(기독교대안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이 학교는 시험과 성적표가 없고, 발표와 토의를 통해 경청을 배우고 합의점을 찾게 합니다. 카에기 폴기마 교장(코어굽 자유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과 자신의 의견이 강하게 대립한 경우, 중간지점을 찾는 것을 배웁니다.”고 학교의 교육을 소개합니다.

한국사회와 한국교회가 변증법의 과정을 통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교회에서 ‘타협’을 가르치도록 합시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태일 목사

## 한주간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인도 : 정태일 목사

찬송 : 543, 370 / 445

기도 : 이어직 집사

성경 : 창세기 1장

제목 :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1. 서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1-2>
  - 1) 내용: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 2) 해석: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주인(내 삶의, 역사의, 재창조의)
  - 3) 적용: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자.(믿음과정은 창조주 고백에서 시작)
2. 하나님의 창조에서 중심은 사람이다.<3-25>
  - 1) 내용: 사람 창조에 관해 별도로, 상세하게 기록하였다.(다음 문단)
  - 2) 해석: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은 사람이다.(자연은 사람을 위한 환경)
  - 3) 적용: 나를 창조세계의 중심으로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3.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에게 권한과 지위를 주셨다.<26-30>
  - 1) 내용: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에게 권한과 지위를 주셨다.
  - 2) 해석: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다.(하나님 경외, 사람 사랑, 자연 돌봄)
  - 3) 적용: 창조의 질서를 잘 따르는 삶을 살자.(그리스도인 삶의 원리)
4. 결론,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환경이다.<31>
  - 1) 내용: 결과,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 2) 해석: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사람들의 삶을 위한 온전한 환경이다.
  - 3) 적용: 하나님이 만드신 온전한 환경을 인위적으로 훼손하지 말자.

## 평화로운 2025년이 되길 바라며

사랑방 식구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은 다들 어떻게 보  
내셨고, 2025년은 다들 어떻게 보내실 예정인가요?

저는 2년전 부터 베트남에서 1월 1일마다 했던 것이 있는데요, 바  
로 작년 목표들을 돌아보며 새해 목표를 적는 것입니다. 메모지에 쪽  
적어놓고, 아빠가 만들어 주신 휴대폰 거치대에 두었습니다. 그럼 1  
년 동안 매일 저녁 먹으면서 종종 읽어보고 돌아보는 찰나의 시간이  
참 좋았어요.

올해는 베트남이 아닌, 한국에서 어김없이 그런 시간을 보내 보았  
습니다. 돌아보니 목표들의 절반은 이루었고, 절반은 이루지 못했네  
요. 그래도 돌아보니 후회 없는 1년이었습니다. 2024년은 새해 목표  
에 적어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도 너무 많  
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평범하고 평탄한 삶이 참 귀하  
고 소중한 것을 새삼 느끼기도 했습니다.

2025년 목표엔 소소하게 책 5권 읽기, 꾸준히 운동하기 등을 적  
어보았습니다. ㅎㅎ. 제 직업과 커리어에 대한 고민들도 적었고요. 그  
래도 가장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바람은, 저와 제 모든 주변 사람들  
이 언제나 소소하게 행복하길, 조금도 아프지 않길, 그렇게 평화로운  
365일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방 식구들의 올해 목표들이 참 궁금합니다. 다들 무슨 마음으  
로 새해를 맞이하셨나요? 아무쪼록 다들 올해도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의 하루하루를 소중히 채워 나가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같은 날이 돌아왔을 때 사랑방 식구들 모두 흐뭇하게 웃으며 올해를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젊은이사랑방 서진솔 청년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민수기 6 : 24-26 인도자  
25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마태복음 6 : 12-13 인도자  
393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고린도전서 1 : 1-3 설교자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28) 따뜻한사랑방  
“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정재훈 목사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412 다함께  
인도자  
410(3)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한호남 정승희 / 봉헌위원 : 이이직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 공동기도문

저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새해의 인사말. 새해가 되면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는 덕담이 오고가면서 새해를 축하합니다. 사람들이 복을 받으라는 인사를 하는데, 장수의 복, 경제적인 복, 출세의 복을 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진정한 복인가? 자칫하면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인사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대부분의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를 누리라는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모든 어려운 형편과 문제 가운데 있는 교회들과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항상 같은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은혜와 평화는 사도 바울이 깨달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와 평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 안에 담이 들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를 먼저 누리야 합니다. 이것은 선물로 주어진 것이며 그것을 깨달아야 누릴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성도에게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장영미 전도사 / 기도 : 이승호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어린이학교 >

### 은율이 졸업을 앞두고

어린이학교 졸업을 앞둔 이은율 어린이의 아빠 이상춘입니다. 12월이 되면 늘 그렇듯 한 해를 뒤돌아보고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 걸 느낍니다. 올해 12월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다르게 다가옵니다.

요즈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두 개의 문으로 들어가는 세계를 사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뻑뻑한 건물들 사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자동차의 소음과 매연, 온갖 잡음들이 섞여 나오는 사람들의 소리. 그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제가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내다가 모든 것이 지친 상태로 기어 나오듯 문을 열고 탈출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을 열고 다른 세계로 들어갑니다. 언덕길을 지나 푸른 숲 사이 꽃들이 저를 먼저 반기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사랑방공동체 어린이학교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곳에 저는 어린이가 되어 들어갑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은 다 잊어버리고 따뜻한 봄처럼 선생님들과 어린이학교 친구들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반겨줍니다.

새싹이 돋는 5월 캠프를 떠납니다. 스스로 음식 재료를 준비해서 저녁을 준비합니다. 직접 비닐장갑을 낀 손으로 비빔면을 만드는 은율이 저에게 맛보라고 먹여줍니다. 한쪽에서는 지글지글 돼지 막창 굽는 소리가 들리고, 고소한 막창을 음미하며 비빔면과 함께 입속으로 넣었을 때 그 맛은 저의 도파민을 폭발시켜버립니다. 환상의 그 맛은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사랑이 가득 담긴 맛이었습니다. 언니 오빠, 누나 형들이 저학년 아이들을 살뜰히 챙기며 같이 공놀이도 해주는 모습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늦은 저녁 저는 캠프파이어에서 달달한 마시멜로를 구워주었습니다. 너무 맛있다고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며 제가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빠들이 힘든 사회생활 속에서 벗어나 힐링을 얻고 온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여름이 지나고 푸른 잎이 알록달록 색깔로 물들어가는 가을. 선두엔 6학년 아이들이 어린이학교 깃발을 들고 한 줄로 서서 5일 동안 수십킬로미터를 걷는 도보여행을 떠납니다. 아이들한테 체력에 뒤지지 않기 위해 일 년 전부터 헬스장을 다니며 운동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첫째 날 출발할 때부터 우는 하늘이, 저 또한 처음인지라 마음속으로 울고 있던 저는 동변상련을 느끼며 “하늘아, 나랑 손잡고 걸을까?”

배움과 가르침

하고 말했더니 선뜻 손을 내밀어 같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청명한 하늘을 바라보며 솜사탕 같은 구름을 먹기도 하고, 알록달록 물든 나뭇잎과 가지를 섞어 떡볶이를 만들어 먹으며, 저와 하늘이는 무사히 완주한 뿌듯한 도보여행이었습니다.

하필이면 도보여행 갔던 날이 저의 생일이었습니다. 마침 아침 식사 메뉴로 미역국이 나와 아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신 학부모님이 같이 생일 노래를 불러줬던 그 아침 시간은 저의 인생에 절대 잊지 못할 추억이고, 그 미역국은 가장 맛있는 미역국이었습니다.

어느새 가을이 지나 겨울이 오고 종강발표회 시간이 왔습니다. 늘 엄마 아빠들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준 아이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학부모님들이 한마음으로 “요계벚의 노래”를 불러 주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부르는데 왜 눈물이 나는 걸까요. 눈물을 흘리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은율이가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 하나님 나라를 느끼며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입니다.’

그동안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감사하며 눈물을 흘린 감동의 종강 발표회였습니다.

저는 늘 우리 은율리와 그의 친구들, 동생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 또한 어린이학교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 함께 학교를 다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행복한 아빠였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첫째 은찬이는 어린이학교를 졸업하고 멋쟁이를 다니고 있고 은율리도 곧 어린이학교를 졸업합니다. 한편으로는 두 아들이 어린이학교를 떠나 아쉽지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키워주신 이월영 교장선생님, 조향민 선생님, 권재만 선생님, 정다운 선생님, 전선희 선생님, 하경임 선생님, 이현숙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늘 잊지 않고 어린이학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글쓴이\_어린이학교 6학년 이은율 아빠 이상춘

## 함께 먹으니 식구지요.

‘식구’는 사전적으로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하는 사람’라는 뜻으로 단어의 한자를 풀어보면 ‘먹을 食(식)’에 ‘입 口(구)’자를 씁니다. 한 음식을 한 입으로 먹는다는 뜻이겠지요.

송구영신 예배 후 새해의 첫 끼니를 떡국으로 지체들과 함께 먹으니 정말 모두 다 ‘식구’임에 틀림없습니다. 해마다 먹는 떡국이었음에도 특별히 이번 떡국은 더 값지게 느껴지고 지체들과 한 가족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시무식으로 생활공동체 식구들과 공동체 직원 분들이 모였습니다.

시무식 때는 특별히 베다니하늘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주시는데 이번에는 갈비와 코다리 찜을 마련해주셔서 거한 잔칫상을 누렸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한 자리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니 단순한 동료가 아닌 한 식구입니다.

일상에서 나누는 공동식사 자리는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교제가 이뤄지는 귀한 시간이고 서로가 한 식구임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생활공동체 식구들은 오전에 함께 모여 함께 성서 일기를 하고 간단한 떡국으로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볶음김치가 유일한 반찬이었지만, 서로 웃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며 식사를 하니 결코 상이 조출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1월에 생일을 맞은 식구들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달달한 다과를 나누니 이 또한 한 가족 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2025년도는 더 자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한 식구로 부르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바로 사랑방에 한 식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장영미 전도사

찬 송 : 552장, 289장

성 경 : 고린도후서 5:16-17

말 씬 : 그리스도로 인한 새사람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대한민국 정세의 안정>  
연일 계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세가 하루 빨리 수습되어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판단하고 빠르게 이 일들을 정리해갈 수 있도록.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한공협 소속 공동체들>  
한공협 소속 공동체들이 2025년에는 더욱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동체들에게 맡겨주신 고유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 1) 새해에는 지체들 모두 예수님 안에서 더욱 강건하기를
  - 2) 치료중이거나 치료를 시작하는 아프신 지체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 < 생활공동체 소식 >

공동생활 식구들은 종무식을 비롯하여 송구영신예배, 시무식을 거치면서 거의 매일 만나 함께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전체모임을 가지며 성서일기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단한 떡국으로 점심을 먹었지만 함께 먹으니 한 식구임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서로의 따뜻한 마음도 나누었습니다. 새로 공동생활에 들어오는 지체들과 함께 모일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